

# 경남매일

2018년 05월 23일 수요일 002면 종합

## 김해시립도서관 3곳 '길 위의 인문학'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김해시립도서관 3곳이 선정됐다.

'길 위의 인문학'은 지역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역사, 철학, 문학 등 지역 주민에게 인문학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

는 사업이다.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선정된 칠암도서관, 장유도서관, 진영한빛도서관은 각 국비 1천만 원을 지원받아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음 달 '길 위의 인문학'을 먼저 시작하는 칠암도서관은 '도서관에서 콜라보 인문학을 즐기다'라는 주제로 과학, 심리학, 건축학, 문학과 인문학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김용락 기자

## 브릿지경제

### 독서대전 개최도시 '김해' 장유도서관... '인문독서 아카데미' 운영

장유도서관, '도시 인문학, 도시의 미학' 주제 5회 강연



◀ 장유도서관은 '도시 인문학, 도시의 미학'을 주제로 '인문독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사진제공=김해시)

경남 김해시는 올해 80개 기관에서 운영되는 '인문독서 아카데미' 사업에 장유도서관, 진영한빛도서관 등 2곳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개최와 더불어 '대한민국 세계 책의 수도'라는 김해 브랜드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김해장유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18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람과 책의 공유를 통해 '책의 도시 김해'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매년 공공도서관, 복지재단 등을 선정해 문(文)·사(史)·철(哲)과 여러 가지 학문을 아우르는 통섭형 인문학 강좌를 지원하고 있다.

장유도서관은 '도시 인문학, 도시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도시와 인문학을 결합한 통섭형 강좌인 '인문독서 아카데미'를 오는 6월 19일 오후 7시 첫 강연을 연다.

1차 강연은 6월~7월 걸쳐 5차례 진행될 예정이며, 도시인문학 입문을 주제로 도시미학과 공공미술, 근대도시 생활의 형성사, 근대도시민의 문화사, 도시 문화생활과 지역경제, 도시문화와 도시의 시간에 관한 강의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강연은 김동규(인문학교실 대표), 서용태(부산대학교 의학역사관 학예연구사), 남종석(부경대학교 경제사회연구소 연구교수), 윤정(함께 읽고 걷는 책 : 곳 대표) 대표가 강의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인문독서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 증대, 사람과 책 공유를 통한 공동체 소통 강화 및 인문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